

태국 UTCC (University of Thai Chamber of Commerce) 파견 수기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송수현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하기 계절학기에 태국 UTCC 대학으로 파견을 다녀온 간호학과 3학년 송수현이라고 합니다. 저의 체험 수기가 태국 UTCC로의 파견을 고민 중이거나, 파견이 결정되어 앞으로 태국에서의 생활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수업 및 학교

수업은 하루에 3시간으로 ppt를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파이널 조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ASEAN 국가 중에서 조별로 2개국을 골라 그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조별로 사업 구성안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이상, 20분 이하였으며, 모든 조원들이 발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의 매일 수업이나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후에 개인 시간을 쪼개 조별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온라인 시험이 1회 있었으나, 오픈북으로 진행되어 부담감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2. 투어 및 체험

개인적으로 이번 파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시암파크, 짜뚜짝 시장, 아유타야, 아이콘시암, 크루즈 디너, 왓아룬 등 관광지 투어가 포함되어 있어, 수업뿐만 아니라 태국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UTCC의 도우미(버디)들과 함께 해서 버디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어 중에서 크루즈 디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공연과 라이브 음악, 뷔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선상에서 방콕의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더 새로웠습니다.

그 외로 교내에서 진행된 체험으로는 '타이 쿡클래스(쌈뎀 만들기)', '전통 의상 입어보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생활

호텔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ratchada에 위치한 Prom Ratchada Hotel이었는데, Big C마트(대형마트), 코인 세탁방(10바트 동전, 세제, 섬유유연제 챙겨가세요), 편의점, 더원 라차다 야시장 등이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현지인이 많은 후웨이팡 시장도 그리 멀지 않아서 시간이 여유로운 주말에 한두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야시장,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파는 물건도 다양해서 한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변에 있는 'The Street'에도 여러 음식점이 있었으며, CW타워에 있는 헬스장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용했습니다.

4. 느낀 점 및 해주고 싶은 말

혹시 태국 UTCC 파견을 고민 중이라면 꼭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취업 준비, 토익, 자격증, 아르바이트 등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태국에서 수업도 듣고 투어도 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도 건문을 넓혀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